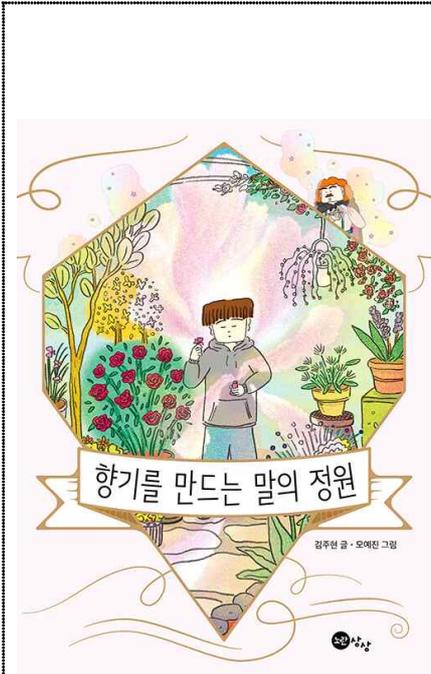




『향기를 만드는 말의 정원』
 김주현(글), 모예진(그림), 노란상상

책과의 첫 만남

★ 표지 보며 이야기 예측하기



1. 아이는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2. 아이는 무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3. 제목과 표지 그림으로 보니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

★ 여러분은 어떤 향을 좋아하나요? 여기 간단한 향기 테스트가 있어요. 나는 어떤 향이 나는 사람인지 간단히 테스트해볼까요?(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조향사(향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만들고 싶나요?



예] 저는 과일 향이 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에게 잘 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결과처럼 저도 친구들이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몽의 싱그러운 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상큼한 향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향기를 만드는 말의 정원』

김주현(글), 모예진(그림), 노란상상

이야기 속으로

-향기 속으로-

★ 사람들의 입에서 뱉어내는 말에는 각각의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말 냄새'인데요. 나의 말 냄새는 어떤 냄새일 것 같나요? 나의 말은 어떤 냄새가 났으면 좋겠나요? 그 이유도 적어보세요.

예:상큼한 레몬탄산수 같은 냄새-나의 통통 튀는 말로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 책 속에서 제비꽃이 “고슬고슬 햇볕 냄새가 나. 바람 냄새도 나고. 가을이 올 건가봐. 나는 원래 봄에 피는 꽃이거든. 그래서 가을이 어떤지 잘 몰라. 어떤 색깔인지, 어떤 향기인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라고 말합니다.

제비꽃에게 여름, 가을, 겨울의 향기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 하고 싶은가요?



참고] 계절의 냄새, 양양(지은이), 노란상상

북트레일러를 함께 보고 제비꽃에게 나만의 계절의 냄새를 소개해 볼까요?

책 속의 예] 봄에는 새 친구에게 처음 인사를 건네는 열은 미소의 냄새





『향기를 만드는 말의 정원』
김주현(글), 모예진(그림), 노란상상

이야기 속으로

★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와 키우는 사람들을 '유기동물구조사'라고 한다면, 버려진 식물을 데려다 키우는 것을 책 속에서는 '유기식물구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00구조사'라면 무엇을 구조하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망토 아저씨가 '모든 생명에는 냄새가 있지. 문을 감아봐 .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식물명상을 함께 해 볼까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관찰해 봅시다. 그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 책 속에서 제비꽃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준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울음이 그칠 때까지 들어주는..이렇게 깊은 공감받고 위로 받은적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위로해준 적이 있나요? (적극적 공감방법?1.눈 맞추어 해주기. 2. 반응해주기(추임새) 3. 상대방과 같은 표정해주기)



『향기를 만드는 말의 정원』
김주현(글), 모예진(그림), 노란상상

나의 이야기로

★ 이 책에서 말하는 덕목(미덕/가치)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덕목들 중에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참고자료: 학토재 스물네 가지 덕목)



★예]이 책은 **효도**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 나도 이 책속 주인공처럼 **효도**의 미덕을 깨워서 부모님께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 망토 아저씨가 외우는 주문 '벨리스 페레니스'의 뜻은?



바로, ()꽃의 학명이에요.

라틴어로 아름답다는 뜻의 벨루스와 영원하다는 뜻의 페레니스를 합친 말이에요. 즉, 영원히 아름다우리라!라는 말이에요.

이 꽃의 꽃말은 '희망'과 '평화'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의 꽃말고 학명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주문을 외워보면 어떨까요? 벨리스 페레니스!

내가 좋아하는 꽃?
꽃말:
학명:
나만의 주문을 만든다면?



『향기를 만드는 말의 정원』
김주현(글), 모예진(그림), 노란상상

나의 이야기로

☘ 책 속에서..말의 씨앗은 마음에서 싹을 틔운다고 해요. 말은 웃음처럼 전염이 된대요. 부드러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요. 마음을 나눌 친구만 있어도 뽀족뽀족 돌았던 가시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만의 말의 씨앗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말의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우면 좋을지 여러분만의 말의 정원을 꾸며보세요. 그 정원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 번 초대해 볼까요?

